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9, Number 1, Mar. 2007: pp. 65~95
통상정보연구 제9권 1호 (2007년 3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07. 02. 15
게재확정일자 : 2007. 03. 15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Promot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주저자)
엄광열(Kwang-Yeol Eom)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원장
김태환(Tae-Hwan Kim)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수료
김재학(Jae-Hak Kim)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목 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사업의 중요성
Ⅲ.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Ⅳ. 개성공단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 추진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Promot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at has been evaluated as the most successful project for inviting the foreign investment of South Korea because man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rushing to invest to that Complex.

Th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are playing a role for North Korea survives in the global digital world in that the cooperation is shifted to IT and e-commerce as well as. North Korea has the policy to increase national wealth to uphold the IT industry

Th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will develop the e-commerce in North Korea and increase the e-Commer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Key Words : GaeSung Industrial Complex, E-Commerce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nfrastructure

Ⅰ. 서 론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공동번영의 경협사업으로 국내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남북상생의 평화・번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2000년 8월 25일 북경에서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 사업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2년 11월 13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지역을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02년 11월 20일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4월 23일에 남한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을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함으로써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기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용지조성작업을 착수하였다. 그리고 남북합의서가 발표된 후 4여년이 지난 후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지정된 15개 업체 중 하나인 리빙아트가 생산한 주방용품이 2004년 12월 15일에 남한에서 판매됨으로써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경제협력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남북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단순한 교역의 수준을 벗어나 IT산업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IT산업과 전자상거래분야의 남북협력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시작되어 평양 또는 중국 단동에 센터 등을 조성하여 국내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 협력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그런대로 소프트웨어에서의 강점을 살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비약형 경제개발전략에 기초하여 남북 IT협력이나 전자상거래협력에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조에 맞물려 북한 진출을 노리는 국내IT업체들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IT합작회사설립, 북한의 IT인력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IT협력이나 전자상거래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인데 다른 어떤 분야의 경제협력보다도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부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논문은 개성공단차원에서의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사업의 중요성

1.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 개요

2004년도 하반기 이후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중단되었지만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는데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공사는 2004년 11월 말에 모두 완료되었고 개성공단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되어 북한관광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남북경협은 사회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인식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북한을 동북아 협력네트워크로 유도하여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1)]

2)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

(1)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2004년부터 개성공단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2004년도에 11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8건의 경제협력사업승인(개성공단개발 관련 사업제외)이 이루어짐으로써 2003년에 비해 승인실적이 크게 늘어났는데 1992년 이후 2006년 11월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136개 업체,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108개였다. 1991년도 이후 경제, 사회문화에서의 협력사업자 승인추이는 <표 1>과 같다.

〈표 1〉 년도별 협력사업자 승인추이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1	계
경 제		1			6	4	16	13	2 (4)	1	6	3	4	28 (1)	29	23 (1)	136 (6)
사회문화	2						1	7	7	8	4	5	12	14	47	24	131
계	2	1			6	4	17	20	9 (4)	9	10	8	16	42 (1)	73	47 (1)	267 (6)

※ 경제분야 협력사업자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6건 취소 조치('99.12.23, 신일피혁·세원커뮤니케이션·성화국제그룹·아이엠시스템, ' 04.01.19, (주) 훈넷, 06.11.1(주)브이케이)
자료 :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11.

1) 통일부, 「통일백서」, 2005, p.77.

〈표 2〉 년도별 협력사업 승인추이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1	계
경 제					1		5	9	1	2	5	2	2	26 (1)	32	23 (1)	108 (2)
사회문화	2						1	5	5	5	6 (1)	7	13	16	47	25	132 (1)
계	2				1		6	14	6	7	11 (1)	9	15	42 (1)	79	48 (1)	240 (3)

※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취소사유 발생으로 1건 취소 조치('01.06.29, 시스젠), 경제분야 협력사업 취소사유 발생으로 2건 취소 조치('04.01.19, (주)훈넷, 06.11.1(주)브이케이)

〈표 3〉 2004년과 2005년도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사업자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자 승인일	사업 승인일
G-한신, 경평인터넷내셔날 (합영)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김치, 된장,상황버섯음료 등)	평양	240만 불	03.10.31	04.3.20
안동대마방직(합영)	새별총회사, 화성합작회사	삼베제조섬유	평양, 황해도	250만 불	04.2.18	04.9.17
서진인터크루(합작)	광명성총회사	핸드백 등 피혁제품제조	평양	800만 불	04.6.8	04.7.7
한국환경자원공사	광명성총회사	폐비닐 재생처리공장 건립・운영	남포, 원산	110억 원	04.7.9	
KT(공동연구)	조선콤퓨터센터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음성인식무인자동화 교환시스템' 보강추진	서울, 평양	12.3만 불	04.7.23	04.7.23
제일유통(계약)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순안구 역산림 지대	54.6만 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품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 불	04.9.17	04.9.17
에스피메디텍	조선컴퓨터센터 (KCC)	북한특허기술 이용 의료기기 생산	서울	-	04.9.17	

이원유통공사	수정금강산 샘물회사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	황북 신평, 평양	582만 불	04.9.17	
브이케이	삼천리기술회사	휴대폰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중국상해	43.3만 불	04.9.23	04.9.23
저이유네트워크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 공장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 불	04.12.30	04.12.30
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제조・판매	평양	-	04.12.30	05.4.15
(주)KH인터내셔날	새별총회사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	평양	-		
(주)스튜디오 투모로우	코스타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 (Hello Kitty)	평양	3.8만 불	05.6.1	05.6.1
아이니무역	개선무역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 불	05.6.15	05.6.15
(주)알티즌 하이텍(합작)	광명성총회사	CPT 개발 및 생산·판매	평양	10만 불	05.9.21	05.9.21
(주)쓰리엔테크놀러지(합작)	삼천리총회사	기계제품 생산·판매	평양	35억 원	05.10.14	05.12.27
(주)대동무역	개선총회사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	남포시 강서구	250만 불	05.11.10	05.11.10
(주)태림산업	개선총회사	석재가공 및 판매	남포, 해주	295만 불	05.12.1	05.12.1
(주)에머슨퍼시픽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골프・스타리조트 건설・운영	금강간 관광지구	723억불	05.12.9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봉산, 황남연덕	26만 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나무재배 및 생산물판매	평양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 불	05.12.30	05.12.30

농협중앙회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융업	금강산	500만 불	06.05.08	06.05.08
현대아산	민경련	남북사이 왕래되는 견본품 운송사업	개성	11만불	06.6.22	06.6.22
아사달	삼천리총회사	디자인콘텐츠 제작	평양	25만 2천 유로	06.7.5	07.7.5
(재)경기디자인 콘텐츠진흥원	심천리총회사	에니메이션 콘텐츠제작	평양	1만 유로	06.8.25	06.8.25

자료 : 통일부,「통일백서」, 2005, p.104.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11.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현황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회담과 8월 제2차 남북장관회담에서 경의선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현황(05.11.41)

구 분			남한측 누계실적	북한측 누계실적
경의선	철도(12km)		02.12.31완료	본선궤도부설완료
	도로(5.1km)		03.10.31완료	포장공사완료
	CIQ	철도	92%	
		도로	70%	
		공용야드	96%(설계부분)	본선궤도부설완료
동해선	철도 (7km)	노반공사	90%	
		구조물공사	97.2%	
		궤도부설	67.031%	
		전기분야	52%	
		역사(CIQ)	84%	
	도로 (6.7km)	도로(4.2km)	04.10.31완료	포장공사완료
		도로(2.5km)	100%(토공)	
		CIQ연결	81.25%	
		CIQ	85.77%	

자료 : 통일부, "주간교류협력동향"(2005.10.30-11.5), 2005.

2002년 8월 12-14일에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 27-30일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의를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를 9월 18일에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하고 경의선 철도는 2002년 내에, 경의선도로는 2003년 봄까지 완공하고 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경우 2003년 9월 완공목표로 하고 동해선 임시도로는 11월 말까지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한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시작하여 철도는 2002년 12월 말에, 도로는 2003년 10월 말에 완료하였다. 2004년 4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차량운행합의서와 더불어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5년 10월 7일 현재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공사 현황은 <표 4>와 같다.

(3) 금강산관광산업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되고 6월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였고 1998년 7월 6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금강산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통신시설제공 및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2] 2000년 11월 18일에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승선시켜 동해항을 출항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한때 중단위기도 있었으나 육로관광 실시 이후 관광객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무려 240%나 증가하였다. 2005년의 경우에도 1월부터 6월까지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16만 363명으로 2004년 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2002년 11월 25일에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였고 9개 하위규정도 발표한 바 있다.[3]

(4) 개성공단개발

통일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으로 승인하였는데 토공과 현대아산은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상대방으로 50년간 토지를 임차,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국내외기업에 분양・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4]

2.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사업의 개요

2000년 8월 22일에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지역의 2,0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합의

2)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제8호(통권23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5, p.36.
3)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현황", 2005.3.23, s.2.
4)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동향(2004.3.20-6.20)",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04, p.131.

한 개설공단건설합의서를 채택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여 공장구역을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건설 추진에 합의하였고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개성공단을 생산거점으로 하고 인천을 물류거점, 서울을 금융거점으로 하는 삼각거점이 구상되기도 하였다.[5] 이상과 같이 개성공단사업의 주요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개성공단사업 주요 추진현황

구 분	추진 내용	일 자
사업자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 평 개발합의서 체결	'00.08.22
	•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주도)	'02.12.26
	•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03.12.11
	•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03.12.22
	•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04.13
	• 토공 개발사무소 준공식 개최	'04.10.21
	• 전력공급 관련 합의서 체결	'04.12.03
	• 통신공급 관련 합의서 체결	'04.12.30
북측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06.29
	• 「노동」 및 「세금」 하위제정·공포	'03.10.01
	•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02.27
	•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08.25
	• 「보험규정」 제정·공포	'04.10.11
남북당국 간 합의	•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02.12.08
	•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08.20
	•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04.01.29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06.30
	•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04.23

5) 외교안보연구원,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04.12.29.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06.14
	•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06.30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04.08.16
	• 시범단지 1차(7개) 협력사업 승인	‘04.09.08
	• 시범단지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09.17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05
	• 시범단지 3차(2개) 협력사업 승인	‘04.10.19
	•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04.10.20
	• 개성공단 우리은행 개점식 개최	‘04.12.07
	• 리빙아트 준공식(첫제품 생산기념식) 개최	‘04.12.15
	• SJ테크 준공식 개최	‘04.12.28
	• 시범단지 4차(2개) 협력사업 승인	‘05.01.26
	• 한국전력 개성공업지구 전력 공급	‘05.03.16
	• KT 통신망 연결	‘05.12.28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추진현황”, 2005;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6, p.123.

〈표 6〉 개성공단개발계획

구 분	개 요
면적	총 2,000만 평(65.7km^2) 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
단계별개발계획	1단계 : 100만 평 규모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2단계 :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 3단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분야의 복합공업단지
1단계개발계획	위치 : 개성시 봉동리 일대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포함) 사업비 : 2,205억 원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후 국내외기업에 분양 및 관리

개성공단 사업은 개성직할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총 2,000만평(65.7㎢) 규모의 공업단지 및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주로 남한의 기업이 개성이라는 북한지역의 공단에 입주하여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단지이다.

〈표 7〉 개성공단의 단계별 개발계획

(단위 : 만 평, 년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가지	총면적
면적	공단	100	150	350	200	-	800
	배후도시	-	100	200	500	400	1,200
개발일정		'02-'07	'06-'09	'08-'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05.7.11.

〈표 8〉 개성공단 개발총계획 지표

구 분	지 표
개발면적	◆ 2,000만 평 ◆ 공장구역은 총 800만 평 중 경계가 확정된 600만 평 우선 개발
입주기업(총 2,000개)	◆ 1단계 : 300개 ◆ 2단계 : 700개 ◆ 3단계 : 1,000개
생산액	◆ 2005년 : 연간 1억 3천만 달러(시범단지) ◆ 2011년 : 연간 160억 달러
고용인력(총 35만 명)	◆ 2005년(시범단지) : 약 7,000 명 ◆ 2007년(1단계 완료) : 약 10만 명 ◆ 2011년(3단계 완료) : 약 35만 명(입주기업 30만 명, 건설 및 서비스업 5만 명)
인구(총 50만 명)	◆ 고용인력 35만 명 + 피부양인구 15만 명

자료 : 현대아산(www.hyundai-asan.com)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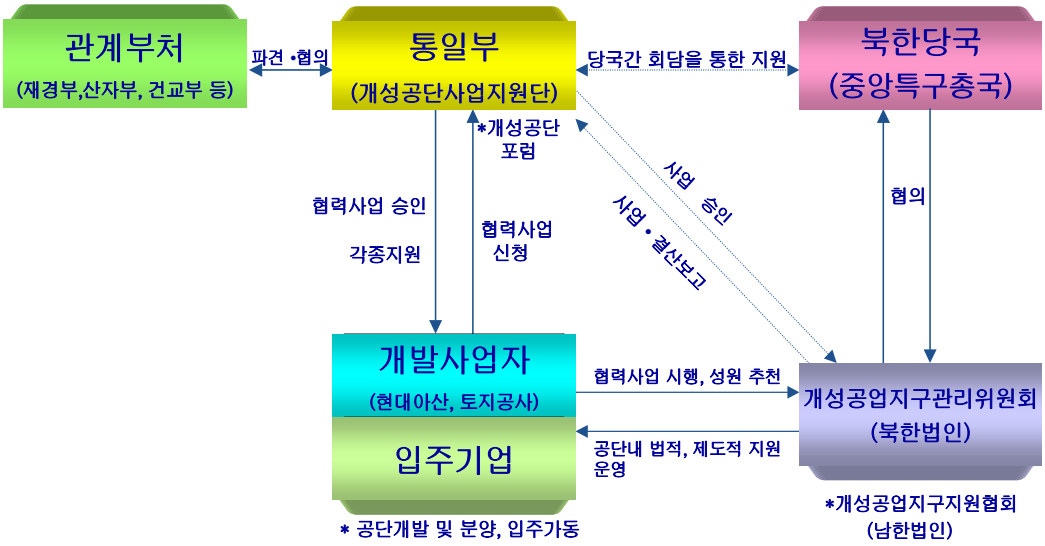
개성공단개발사업은 남한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으로 북한 개성시 일대 약 2,000만 평(공단 800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28,000평을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다.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인 100만 평의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합의하였고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을 2005년 내에 완료하고 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의 개선 그리고 본 단지 분양 등에 대해 남북당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6] 1단계 사업에 토공과 현대아산은 총 2,20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07년까지 1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6) 홍익풍,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 과제와 전망", 「세계경제」, 제8권 제9호(통권8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9, p.68.

2) 개성공단관련 주요조직

개성공단 사업은 여러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공단 입주기업과 북한당국과의 관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당국의 미협조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개성공단 사업추진체계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현황”, 2005.3.23, s.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비록 북한법인이지만 개발사업자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전원 구성되고 남한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공단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인 중앙특구총국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급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한 업무 협의는 현대와 남한 정부측과 북한의 중앙총국과 당기관측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 민간기업으로서 현대아산이 입주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3) 입주현황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선정기업 15개 기업중 전략물자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1차 7개 기업, 2차 4개 기업, 3차 2개 기업, 4차 2개 기업을 각각 선정하였다. 1차와 2차 11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

은 462억 원, 분양면적은 19,882평이었다.[7] 3차로 로만손, TS정밀을 정부는 추가승인하였는데 투자금액은 184억 원, 분양면적은 4,247평이다.[8] 4차로 2005년 1월 26일에 제씨콤, 재영솔루텍에 대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는데 총투자금액은 93억 원, 분양면적은 총 4,216평이다.[9]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단위 : 평, 억 원)

구분	업체명	분양면적(건축면적)	투자금액	업종	비고
1차승인 (04.9.8)	부천공업(주)	2,439(850)	45.0	전기공급, 제어장치	
	매직마이크로	1,222(590)	30.0	전자부품, 영상장비	
	대화연료펌프	1,221(611)	50.8	자동차부품	
	삼덕통상	2,439(2,900)	49.6	신발제조	
	태성산업	2,439(1,273)	60.0	프라스틱 제품제조	
	문창기업	1,627(761)	38.0	봉제의복	
	용인전자	2,439(1,134)	40.0	전자부품	
2차승인 (04.9.17)	리빙아트	999(590)	45.0	기타 금속부품	12.15 준공
	SJ테크	1,626(783)	40.0	프라스틱부품	12.28 준공
	신원	2,439(693)	37.9	봉제의복	
	호산에이스	999(583)	26.0	일반기계제조	
3차승인 (04.10.19)	로만손	2,621(1,417)	155.8	시계 및 전자부품제조	
	TS정밀	1,627(654)	28.0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4차승인 (05.1.26)	제씨콤	1,778(606)	43.0	통신, 방송장비 제조	
	재영솔루텍	2,439(821)	50.0	기타 기계제조	

그리고 4차 승인 이후의 개성공단협력사업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7)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동향(2004.6.21-9.30)",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4, p.120.
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동향(2004.10.1-12.31)",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4, p.88.
9)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동향(2005.1.1-3.31)", 「수은북한경제」, 봄호, 2005, p.101.

〈표 10〉 4차 승인 이후의 개성공단협력사업 승인현황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현대아산	공단내 복지회관 건설사업	63억 원	‘05.1.28 (‘05.1.28)
▲한국전력	전기공급	51,453백만 원	‘05.2.18 (‘05.2.18)
▲(주)KT	통신공급	3,600백만 원	‘05.4.13 (‘05.4.13)
▲(주)평야토건	공장건축	1,450백만 원	‘05.7.19 (‘05.7.19)
▲코튼클럽(주)	내의류 제조업	26억 원	‘05.11.8 (‘05.11.8)
▲(주)평안	섬유제품 제조업	50억 원	‘05.11.8 (‘05.11.8)
▲성화물산	섬유제품 제조업	62억 원	’05.11.25 (’05.11.25)
▲좋은사람들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1억 원	’05.11.25 (’05.11.25)
▲진글라이더	섬유제품 제조업	28억 원	’05.11.25 (’05.11.25)
▲엠엔에스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7억 원	‘05.12.1 (‘05.12.1)
▲평화유통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억 원	‘05.12.1 (‘05.12.1)
▲제일상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0억 원	‘05.12.1 (‘05.12.1)
▲육일섬유공업사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억 원	‘05.12.1 (‘05.12.1)
▲아트랑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0억 원	‘05.12.14 (‘05.12.14)
▲만선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8억 원	‘05.12.14 (‘05.12.14)
▲한국마이크로휠터	섬유제품 제조업	15억 원	‘05.12.14 (‘05.12.14)
▲화인레나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5억 원	‘05.12.14 (‘05.12.14)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211억 원	‘05.12.20 (‘05.12.20)
▲소노코쿠진웨어	기타 조립금속제조 및 금속처리업	45억 원	‘06.1.4 (‘06.1.4)
▲지아이씨상사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5억 원	‘06.1.23 (‘06.1.23)
▲에스엔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38억 원	‘06.1.23 (‘06.1.23)
▲서도산업	기타의복 악세사리 제조업	35억 원	‘06.1.23 (‘06.1.23)
▲현대아산	건자재 생산 및 공급업	78억 원	‘06.2.3 (‘06.2.3)
▲아이보리	근무복 및 작업복 제조업	40억 원	‘06.2.22 (‘06.2.22)
▲제이슨	기타 신발 제조업	60억 원	‘06.2.22 (‘06.2.22)
▲녹색섬유	근무복 및 작업복 제조업	12억 원	‘06.2.22 (‘06.2.22)
▲밀리온스	가방, 봉제완구 기타의복 제조업	40억 원	‘06.2.28 (‘06.2.28)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주유소, LPG충전소 설치 및 운영사업	70억 원	‘06.4.4(‘06.4.19)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성공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1억 200만 원	‘06.4.19(‘06.4.19)
▲한국가스안전공사	개성공단 가스안전 관리	3천만 원	‘06.4.19(‘06.4.19)
▲혜성정보통신	개성공단 내 위성방송 서비스		‘06.6.27(‘06.6.27)
▲신영스텐	주방기구 제조업	3억 원	’06.8.3(’06.8.3)
▲조민포장	지함, 쇼핑백 제조	4.5억 원	’06.8.3(’06.8.3)
▲대건실업	주방기구 부품 제조업	3억 원	’06.8.3(’06.8.3)
▲훼미리마트	손목시계 완제품 제조업	15억 원	’06.8.4(’06.8.4)
▲한국엘피가스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	80억 원	’06.8.18(’06.8.18)
▲E1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	50억 원	’06.8.18(’06.8.18)

자료 :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11.

4) 개성공단개발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효과

1년차 개발 시작 후 사업이 가동되는 4년차의 남한경제에 대한 직접적 파급효과는 연간 생산 9.4조 원, 연간 부가가치 2.7조 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4년차의 경제적 효과를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는 직・간접효과로 보면 연간 생산 10.6조 원, 연간 부가가치 3.2조 원이 창출된다. 7년차의 남한경제에 대한 직접효과는 연간 생산 21.7조 원, 연간 부가가치 6.1조 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7년차의 경제적 효과를 간접효과까지 포함하여 직・간접효과로 보면 연간 생산 24.3조 원, 부가가치 7.4조 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1〉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효과

(단위 : 억 달러)

구분			1년	2년	3년	4-6년	7년	8년	9년	12-13년
연간 생산액	직간접 효과	조원	-			10.6	24.3	24.3	93.9	93.6
	직접 효과	조원	-			9.4	21.7	21.7	83.9	83.8
연간 부가가치	직간접 효과	조원	-			3.2	7.4	7.4	29.1	28.8
	직접 효과	조원	-			2.7	6.1	6.1	24.4	24.1

자료 : 박석삼,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p.41.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3년 연평균 약 1.2%이었으며, 여기에 대북지원

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연평균 약 2.3%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3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2.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재 남북교역이 없다면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교역은 그 비중과 함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특이한 내용인데 그 이유는 남북교역에 있어 비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남북교역 전체의 절반, 북한 반입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다는 데 있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물품의 반입이지만, 상품수지의 적자가 아니라 경상 및 이전수지의 흑자로서 북한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북한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남한과의 경우에는 거래성 교역을 통해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10)]

결국 개성공업지구 개발로 인한 남북교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남북 양측의 경제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개성공업지구 개발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품생산지가 될 수 있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제 사업 성격에 비추어 일종의 '평화구축 프로젝트(Peace-building project)'라고 할 수 있다.[11)]

Ⅲ.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1.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의 현황 및 동향

1)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의 개요

북한에서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이 국가과학원 프로그램 종합연구실, 평양정보센터, 조선콤퓨터센터,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12)] 남북한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평양정보센터, 조선콤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3월에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는 2004년에는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 5개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11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하나비즈닷컴은 2001년 3월 북한의 민경련, 평양정보센터와의 합영으로 중국 단동에 '단동하나프로

10)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pp.36-37.
11) 통일부, "남북관계추진현황" 2004, p.11.
12) 김상택 ·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부분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ISSUE」, 제11권 제7호(통권1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11, p.24.

그램센터'를 중국법인으로 설립하였고 2001년부터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도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KT측은 북한측의 조선콤퓨터센터와 계약체결을 통해 조선어기반의 음성 DB코퍼스를 구축하였고, 음성인식기, 지능망 서비스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사업을 통하여 2005년 8월 1차 화상상봉을 성사시켰고, 2005년 11월 2차 화상상봉도 성사시켰고 개성공업지구 통신사업을 통하여 2005년 11월에 통신개통을 완료하였다.

엔트랙의 전신인 엘사이버는 2000년 10월에 평양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한 이래 2001년 5월의 3차 교육까지 다수의 북한의 IT인력을 교육시킨 바 있는데 이러한 교육경험이 IT단지 설립을 도출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3] 엘칸토는 인터넷 소프트웨어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광명성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제공하는 합작형태를 취하고 있다.[14] IT단지에 입주하는 남한 벤처기업들이 북한의 IT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북한은 평양에서 남한의 IT나 전자상거래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15]

훈넷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해당사업승인범위를 벗어난 실제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의 도박과 복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2004년 1월 19일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승인이 취소되어[16] 남북경협사업에서 큰 오류를 남기게 되었다. 서버구축과 광케이블매설에 훈넷이 2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다.[17]

소프트개발 벤처기업인 티지코프가 북한에 전자상거래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평양정보센터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망을 구축시 지불결제솔루션 제공, 북한내 로열티 마케팅 서비스 및 솔루션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나 티지코프측에서의 사업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 등의 문제로 사업의 진척없이 종료되었다.

〈표 12〉 남북한 주요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남한사업자	북한사업자	추진시기	사업내용	비고
삼성전자	조선콤퓨터센터	2000.3.13	S/W공동개발 및 수입판매	북경에 S/W공동개발연구소 설립
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2001.3.23	애니메이션 공동개발 및 수입판매	'뽀로로', '게으른 고양이 딩가' 등 공동제작 반입
하나비즈닷컴	평양정보센터	2001.4.28	S/W공동개발 및 수입판매	단둥에 S/W개발을 위한 '하나프로그램센터' 설립
엔트랙	광명성총회사	2001.4.30	애니메이션 임가공, 북한 S/W 인력교육	고려정보기술센터설립

13) 임완근, "북한의 IT산업의 현황과 남북IT 경험의 효과와 전망", 「북한경제논총」, 제7호, 북한경제포럼, 2001.12.
14)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남북IT부문 공동표준 형성방안 연구」, 2006.1, p.34.
15) 유승훈, "남북한 정보통신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제4권, 통일부, 2001.12.
16)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남북IT협력 Guide Book」, 2005.3, p.124.
17) 이제훈, "남북합작 인터넷복권사업 공방가열/ 훈넷 강행 맞불 당국 차단 초광수", 한겨레신문, 2002.4.8.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2000.7.14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북한문화정보화사업	자본금 50만 달러
훈넷	범태, 조선장생무역총회사	2001.12.29	인터넷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투자금액 20만 불, 2004.1.19 취소
KT	조선콤퓨터센터	2004.7.23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12.3만 불
브이케이(VK)	삼천리기술회사	2004.9.23	휴대폰분야 소프트웨어개발	43.3만 불
스튜디오 투모로우	코스타	2005.6.1	애니메이션제작용역(Hello Kitty)	3.8만 불
아사달	삼천리총회사	2006.7.5	디자인콘텐츠 제작	25만 2천 유로
(재)경기디자인콘텐츠진흥원	삼천리총회사	2006.8.25	에니메이션 콘텐츠제작	1만 유로

자료 :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6, pp.15-19참조;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11.

2) 대표적인 주요사업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00년 3월 13일에 72만 7천 달러(한화 8억 7천 200만 원)를 들여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에 의뢰하여 ① 문서요약, ② 리눅스용, ③ 휴대폰게임 및 응용, ④ 휴대폰용 중국어문자인식, ⑤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를 공동개발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정부로부터 동시에 승인받았다.[18] 양측은 중국 북경소재 ‘삼성조선콤퓨터SW공동개발센터’에서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개발작업은 전적으로 북한측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금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19]

2000년의 이러한 시범과제를 기초로 2001년에는 16개 개발과제가 계약체결되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역과제 개발과 별도로 삼성측의 북한의 IT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북한의 IT기술인력의 배양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20]

(2) 하나비즈

하나비즈는 한국의 통일부와 북한의 민경련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북측의 평양정보센터를 사업파트너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8) 디지털타임즈, “정부, 남·북 SW공동개발사업승인”, 2000.3.14.
19) 공영일, “정상회담을 전후한 IT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 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2권 제16호(통권262호), 2000.9, p.56.
20) 김근식, “북한의 IT경협전략과 대응방안”,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2.5.6, p.46.

2000년 6월에 하나비즈가 금강산국제그룹, 아사히네트워크, 그리고 북측의 조선소프트웨어센터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동으로 2000년 하반기에 북한의 신의주에 남북합작소프트웨어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앞서 남측기업들이 대북투자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의주 인접지역인 중국 단둥에 '남북교역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있는 아사히네트워크는 단둥에 파견된 조선컴퓨터센터 기술진 10여명과 함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착수하기도 하였다.21)

〈표 13〉 교육과정의 내용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1차 (01.08-02.01)	IT공통교육과정 1개월, 30명	Window2000 Server, Linux, 데이터통신과 Network, Visual C++ 프로그래밍
	Network전문가과정 3개월, 15명	TCP/IP프로토콜 및 응용기술, LAN, WAN을 통한 네트워킹기술, Network연동기술, VR과정, LAN고장진단과 장애처리, 서버구축,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구성설계 및 관리
	전자상거래전문가과정 3개월, 15명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UML 개발방법론 및 응용, JAVA, VR과정, DB설계기술, PHP프로그래밍, JSP프로그래밍, XML, 전자화폐와 전자지불 및 보안기술
2차(02.2-02.8)	IT공통과정(05-06)	데이터통신과 Network, Window2000 Server, Linux 및 서버구축
	Network전문가과정 (06-08)	프로그래밍기술(Visual C++), TCP/IP프로토콜 및 응용기술, Network Programming, 무선네트워크, Network 연동 및 장비구성, 네트워크보안, Network Management System
	Web 프로그래밍 (06-08)	JAVA프로그래밍, DB기술, JSP프로그래밍, UML개발방법론 및 응용, ebXML, 무선인터넷 프로그래밍
3차(05.10-06.03)	3차교육내용	데이터통신과 Network, NetworkProgramming, MS .Net, JAVA 프로그래밍, RUP기반의 J2EE애플리케이션개발, 자바기반 무선인터넷 게임프로그래밍, 중국IT단지참관, DB & JSP, Linux기반 LAN구축, 임베디드 리눅스실전 프로그래밍, 스마트 카드와 보안

자료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실무중심형 교육센터를 통한 북한 IT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2006.1, pp.43-45.

2001년 8월 단동에 하나비즈닷컴과 북측의 평양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개발 전문회사로서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였는데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인터넷콘텐츠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공동연구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남북간 IT협력사업관련 첫 합영회사로 사업기간은 회사설립일로부터 20년이며 투자규모는 200만 달러 정도로 하나비즈측이 전액

21) 전자신문, "대북IT교류기반을 다진다", 2000.8.16.
22) 김근식, 전게서, p.44.

부담하였다.[23] 하나프로그램센터는 임대건물을 중심으로 입주업체가 많아질 경우 주변으로 임대를 확대하여 정보기술밸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북측의 개발진 30여명이 상주하면서 남측의 개발과제를 수주받아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부터 30여명이 더 충원되어 60여명의 개발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프로그램센터는 이러한 개발업무와는 별도로 회사내에 하나프로그램센터 교육원을 설치하고 북측의 인력을 중국단동으로 초청하여 IT기술 분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1차 교육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3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차로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3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3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1)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의의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남북한간에 전자상거래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한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관련 협력사업이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북한의 낙후된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남북한의 자원공유를 통한 전자상거래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디지털혁명하에서의 북한의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해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급속히 발달되고 있는 세계의 전자상거래시장에 북한을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지역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기에 북한이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IT나 정보통신협력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협력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남북한의 윈-윈전략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적합하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내에서 나름대로의 우수한 IT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남한의 우수한 전자상거래관련 보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활용형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공히 협력사업을 통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된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이 세계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시장에서 판매가능하고 북한의 수출능력을 강화하여 부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전자상거래관련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술이전협력사업으로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

23) 유승훈 · 정군오, “남북한 IT협력과 중소기업의 역할”, 「2002년도 정기총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중소기업의 조직화와 소상공인의 고도화」,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p.207.

2)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유형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유형은 다음 <표 14>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표 14〉 남북한 전자상거래사업의 유형

구분	세부사업	내용
협력분야	하드웨어분야	e-Commerce 특화된 하드웨어와 관련된 협력사업
	소프트웨어분야	e-Commerce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협력사업으로서 솔루션 개발사업
	플랫폼분야	e-Commerce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플랫폼사업
	인력양성분야	북한지역내에서 전자상거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력사업
	법률분야	북한의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정비관련 협력사업
협력정도	원조형	북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협력사업
	협력형	남북한 공히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협력사업

자료 : 최석범외 1인,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8, p.284.

3)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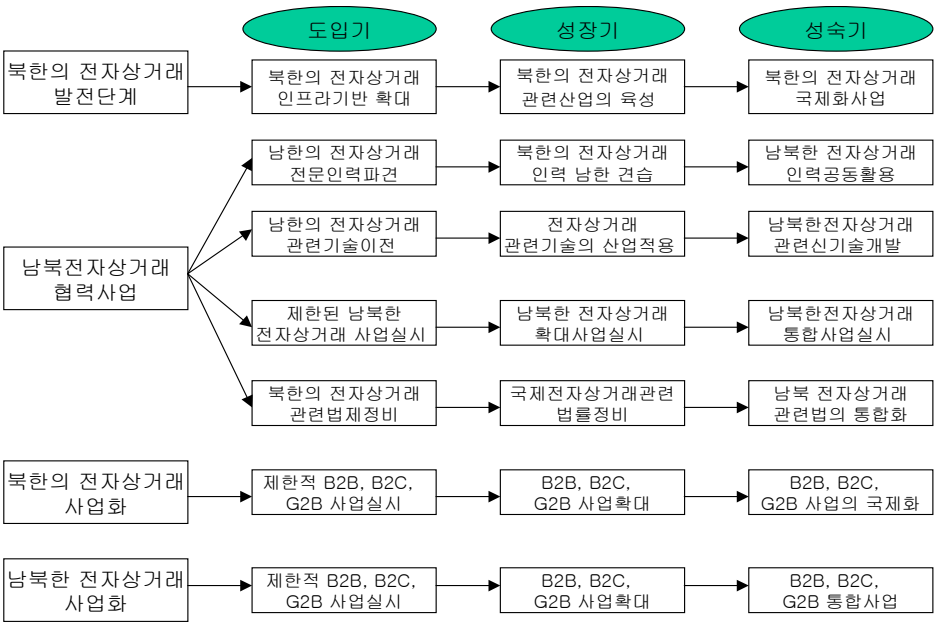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그림 2>와 같이 3단계 즉,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24]

도입기는 북한의 전자상거래 인프라기반확대단계로서 제한된 남북한 전자상거래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이고 성장기는 북한의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의 육성단계로서 남북한 전자상거래확대사업이 실시되는 단계이고 성숙기는 북한의 전자상거래 국제화사업단계로서 남북한전자상거래 통합사업이 실시되는 단계이다.

제한된 B2B, B2C, G2B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통제가 따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한된 B2B거래는 북한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개성공단에 거주한 기업과 북한 국영기업간의 거래를 의미하고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남북한 교역물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남북전문 e-MP(Marketplace)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한된 B2B거래를 의미한다.

24) 최석범외 1인,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8, p.284.

<그림 2>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자료 : 전게서, p.285.

Ⅳ. 개성공단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 추진방안

1. 개성공단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필요성

1)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IT인프라구축

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부기관, 군기관의 컴퓨터네트워크 수준 역시 '광명'이라는 지엽적인 수준의 인트라넷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의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면 그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정보격차수준을 실감할 수 있다.

<표 15> 남북한 정보화 수준비교(2000년 말 기준)

구분	남한	북한
전화보급대수	2,700만대(1.7명당 1대)	140만대(15.7명당 1대)
휴대전화사용인구	2,700만명	300-1,000명
무선호출기	사실상 퇴조	2000년 8월 나진·선봉 서비스 시작, 최근 금강산 지역 일부서비스
인터넷사용인수	1,904만명	불명(극소수로 추정)
PC보급대수	1,319만대	10만대
TV보급대수(96년 기준)	1,487만대	270만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북한의 IT산업현황과 남북협력활성화방안」, 2001.10, p.60.

IT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습득이 이루어져야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IT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남북한 정보격차해소는 다가올 통일시대의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보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정보인프라를 개선하여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적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북한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당연히 IT인프라에 투자하여 전자상거래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남한당국이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개성공단의 홍보효과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사업의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개성공단의 대내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한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북한산제품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수출시장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적용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통하여 개성공단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유치와 개성

공단생산제품의 원산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하여 미국시장에서 넥타이수입은 일반국가에게 7.6%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북한산의 경우 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3)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접근용이성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인력과 토지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는 경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그 사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남한기업의 단독투자로 진행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합작 또는 합영형태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정치적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북한의 내수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전자상거래사업의 필요성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조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매할 수 있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앙특구총국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직접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노동력의 이용에만 제한되는 경우 개성공단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개성공단의 성과를 확대시키고 구매수요가 적을지라도 북한의 내수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의 전자상거래발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으로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성공단의 개발을 남한이 책임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경협모델은 북한의 자체적인 경제개발이나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북한의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생산된 제품을 북한의 내수시장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북한 주민의 거부반응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간접교역을 탈피한 직접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필요

지금까지 남북한 교역은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경비,

납기, 품질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었다.[25] 남북교역은 초기부터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2005년 10월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실질적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가동, 남북간 직접결제제도 마련 등의 직교역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26]

특히 B2B전자상거래의 경우 당사자간의 직교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성공단 B2B전자상거래사이트가 개설되는 경우 남북한간의 직교역의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개성공단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성공단업무처리창구 단일화 도모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이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민원업무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성공단 G2B사이트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대정부민원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G2B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유형과 추진전략

1)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유형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개성공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사업의 유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분야에서의 개발을 위한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는 남한의 전자상거래관련업체가 입주하여 관련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전자상거래관련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인력양성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B2B, B2C, G2B구축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원조형과 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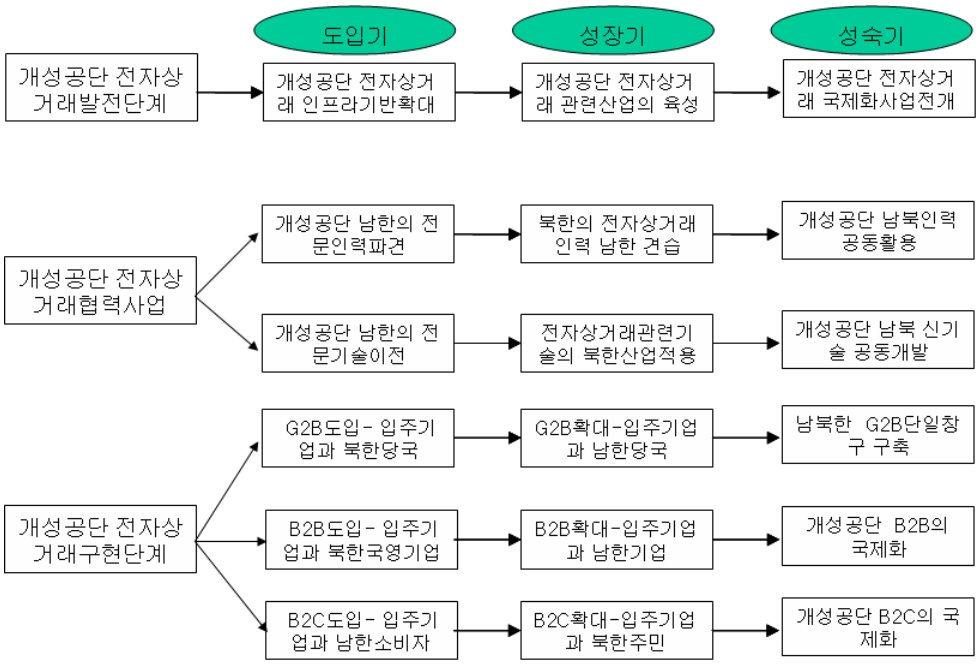
25) 김진호, “개성공단 착공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남북경협위원회 제10차 실무회의, 대한상공회의소, 2003.7, p.7.
26)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6, p.107.

〈표 16〉 개성공단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유형

구분	세부사업	내용
협력분야	하드웨어분야	개성공단내에서 e-Commerce 특화된 하드웨어 생산과 관련된 협력사업
	소프트웨어분야	개성공단내에서 e-Commerce 특화된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
	플랫폼분야	개성공단내에서 e-Commerce를 지원하는 플랫폼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
	인력양성분야	개성공단내에서 전자상거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사업
	전자상거래구축사업	· B2B : 개성공단입주기업과 북한국영업체 또는 남한업체간의 거래 · B2C : 개성공단입주기업과 북한주민 또는 남한주민간의 거래 · G2B : 개성공단입주기업과 북한당국 또는 남한당국간의 거래
협력정도	원조형	개성공단내에서 북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
	협력형	개성공단내에서 남북한 공히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협력사업

2) 추진전략

〈그림 3〉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향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성공단내에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북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의 활용가능성과 기술이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력양상차원에서는 남한의 전문인력을 개성공단에 파견하여 북한의 전자상거래전문인력의 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의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남한의 전자상거래관련기업의 견습을 거쳐 관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숙기에는 남북한 전자상거래인력을 개성공단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상거래기술이전의 경우에 우선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전자상거래기술을 이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남한의 전자상거래관련업체와 북한국영기업과 합작으로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숙기에는 관련기술을 북한의 산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도록 도모한 후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구현과 관련해서는 우선 G2B의 경우 도입기에는 입주기업과 북한당국간, 그 다음에 입주기업과 남한당국간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G2B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2B의 경우에는 입주기업과 북한국영기업간에 우선 도입하고 입주기업과 남한기업간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B2B의 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B2C의 경우에는 입주기업과 남한소비자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북한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입주기업과 북한주민간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뒤에 분위기를 조성하여 입주기업과 북한주민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종적으로 개성공단 B2C의 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전개방안

1) 북한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고려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북한의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개성공단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 전역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을 북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여 개성공단을 통하여 다양한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자생력을 도모할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개성공단 전자상거래 교육센터의 설치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전문인력

을 양성시켜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전자상거래교육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단동에 설치된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프로그램 교육원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경우에는 G2B, B2B, B2C의 구축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하여금 개성공단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성공단을 북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점을 활용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립과 추진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한 전자상거래관련 정부관계자, 전자상거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개성공단 등에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남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포럼 개최

개성공단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남북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남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포럼을 개최하여 남북한 관계자들이 열린 마당에서 관심사를 논의하여 남북한 전자상거래 도입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남북한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국제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6) 전자상거래협력사업별 성공모델의 도입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고려함에 있어 성공모델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전자상거래솔루션개발과 관련해서는 하나프로그램센터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남한 전자상거래솔루션회사와 북한의 관련업체간에 합작으로 개성공단에 개성공단 프로그램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남북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G2B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관세청과 통일부가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남북을 왕래하는 통행차량과 관련된 민원신청업무를 위한 싱글윈도우를 구축하였는데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민원서식을 통합하여 간소화를 도모하고 전자문서를 표준화하여 통관시스템(관세청)과 남북교류시스템(통일부)이 연계하도록 하였다.[27]

향후 관세청과 통일부 등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인력, 차량, 물자이동과 관련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개성공단 G2B 싱글윈도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통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중복업무 등을 제거하여 단일화업무절차를 통하여 각 관련기관에서는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7) 정보격차해소지원차원에서 남한의 다양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제공사업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차원에서 남한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플랫폼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수한 성능을 증명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에게 납품하고 있는 북한의 국영업체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납품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기업들이 생산된 제품을 남북한 업체에게 판매하는 정보흐름까지 통합하는 개성공단 e-SCM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통관과 전자무역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관시스템과 전자무역시스템을 북한에 무상으로 구축하는 것도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개성공단의 남북한 수출입업무의 통합화추진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수출입업무의 통합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남북한 관계당사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개성공단으로 원자재가 수입되는 경우에 남북한 공히 동일한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색케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수출입업무의 통합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로 통합화는 북한의 무역프로세스를 남한의 무역프로세스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28] 그러나 이를 위해 남북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수출입업무재설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7) 관세청 통관기획과, “남북통행차량 민원업무의 구축 · 시행”, 2005.7.4.

28) 최석범, “북한의 IT인프라 현황과 남북한 전자무역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9.25, pp.130-131.

V. 결 론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남북한 협력사업으로서 북한의 전자상거래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될 수 있다. 즉, 남북한경제협력사업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고 남북한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상거래협력사업도 이러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살펴보았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한 협력사업으로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산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성공단내에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북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의 활용가능성과 기술이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전개방안으로서는 첫째, 북한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고려한 개성공단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내에 전자상거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북한내에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자상거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토론장으로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포럼을 개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협력사업별 성공모델을 도입하여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보격차해소 지원차원에서 남한의 다양한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개성공단의 남북한 수출입업무의 통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제8호(통권231호), 1999.5.

_____, “정상회담을 전후한 IT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 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2권 제16호(통권262호), 2000.9.

관세청 통관기획과, “남북통행차량 민원업무의 구축 · 시행”, 2005.7.4.

김근식, “북한의 IT경협전략과 대응방안”,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2.5.6.

김상택 ·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부분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ISSUE」, 제11권 제7호(통권1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11.

김진호, “개성공단 착공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남북경협위원회 제10차 실무회의, 대한상공회의소, 2003.7.

박석삼,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외교안보연구원, “개성공단과 난북한 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04.12.29.

유승훈, “남북한 정보통신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4권, 통일부, 2001.12.

유승훈 · 정군오, “남북한 IT협력과 중소기업의 역할”, 「2002년도 정기총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중소기업의 조직화와 소상공인의 고도화」,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이제훈, “남북합작 인터넷복권사업 공방가열/ 훈넷 강행 맞불 당국 차단 초광수”, 한겨레신문, 2002.4.8.

임완근, “북한의 IT산업의 현황과 남북IT 경험의 효과와 전망”, 「북한경제논총」, 제7호, 북한경제포럼, 2001.12.

전자신문, “대북IT교류기반을 다진다”, 2000.8.16.

지털타임즈, “정부, 남 · 북 SW공동개발사업승인”, 2000.3.14.

최석범, “북한의 IT인프라 현황과 남북한 전자무역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9.25.

최석범외 1인,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8.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현황”, 2005.3.23.

_____,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05.7.11.

_____, “남북관계추진현황” 2004.

_____,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11.

_____, “월간교류협력동향”, 2006.6.

_____, “주간교류협력동향”(2005.10.30-11.5), 2005.
_____, 「통일백서」, 2005.
_____, 「통일백서2006」, 2006.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IT산업현황과 남북협력활성화방안」, 2001.10.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동향(2004.10.1-12.31)”,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4.
_____, “남북협력동향(2004.3.20-6.20)”,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04.
_____, “남북협력동향(2004.6.21-9.30)”,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4.
_____, “남북협력동향(2005.1.1-3.31)”, 「수은북한경제」, 봄호, 2005.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남북IT부문 공동표준 형성방안 연구」, 2006.1.
_____, 「남북IT협력 Guide Book」, 2005.3.
_____, 「실무중심형 교육센터를 통한 북한 IT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2006.1.
홍익풍,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 과제와 전망”, 「세계경제」, 제8권 제9호(통권8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9.